

데스크 시국



최재호 경제부장

오늘날과 같은 기술경쟁 시대에는 뛰어난 인재가 기업이나 국가의 으뜸가는 자산이 된다. 삼성 이견희 회장은 지난해 핵심인재의 확보 및 양성문제를 최고경영자의 기본 책무로 삼을 것을 계열사 사장단에 주문했다. LG 구분무 회장이든 연구개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현대자동차, SK그룹,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 오너들도 인재경영에 사운을 겹다시피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연내 이진

고급 두뇌 확보 노력은 비단 기업체의 일만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는 기업과 기업이 소재한 지역, 더 나아가

연구인력 유출 두고만 볼 건가

가 국가의 경쟁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이 수백여 명의 연구인력을 분사가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속속 세우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연구소의 수도권 이전 계획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 연구인력 수백 명이 광주지역을 떠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으로 중단됐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중앙연구소를 경기 용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연내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최대 연구개발과 시험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연구소를 지난 2008년부터 옮기는 작업을 추진했으나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금호타이어가 올해 워크아웃을 졸업하겠다는 목표로 연구소 이전을 재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연구소는 타이어 개발은 물론 자재와 디자인 연구 등 회사 내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다. 금호 관계자는 "중앙연구소 이전을 추진했다가 워크아웃으로 중단했을 때 20%에 가까운 연구인력이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회사로서는 연구소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개발인력 500여 명의 수도권 이전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이다. 이 가운데 냉장고 관련 200여 명, 청소기 관련 100여 명, 개발 품질관리 200여 명 등이 수원 연구소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개발 인력 이전설이 사실이라면 공장 내 정규직원 4000여 명 가운데 13%인 500여 명이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연구인력 현황 파악 시급

특히 삼성전자가 수원사업장 내에 삼성전자연구소(R5)와 삼성부품소재연구소를 올 6월과 8월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광주공장 연구인력 이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딱 질라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사람뿐 아니라 고가의 연구시설과 장비가 함께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삼성전자 연구인력 이전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전자 연구인력 이전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지역 거점연계에 서는 삼성전자의 연구인력 이전설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연구인력 수도권 이전과 관련된 기업들은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워 인력양성이 힘들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관련분야 연구소 간 제휴 업무에 있어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경우 급여수준과 근무환경보다는 근무지역의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우선해 지방근무 기피 현상이 다른 직종에 비해 강하다. 이는 전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의 71.3%가 수도권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광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기업의 연구인력이 빠져나가면 지역의 연구 역량 저하와 함께 광주공장은 단순 생산기지화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대학의 관련학과와 위축도 불을 보듯 뻔하다.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하루빨리 광주지역 기업들이 운영 중인 연구소의 현황과 실제 파악을 통해 데이터화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지역연구인력 유출에 대한 방관과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는 안 된다. /lion@kwangju.co.kr

은펜클럽

진정한 올림픽 정신 실현한 스포셜올림픽

건을 겹고 2013 평창 동계 스포셜올림픽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열린다는 소식을 필자는 TV 뉴스를 통해 잠깐 소개되는 것을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올림픽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올림픽 종료 후 2주일 내에 열리는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전부였는데 생소한 올림픽의 이름이었다.

"스포츠엘 올림픽이 뭐지?"하는 궁금함에 알아보니 스포셜올림픽은 지적발달장애인의 운동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 케네디 주니어 재단 지원하에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유니스 케네디가 미국에서 창시한 지적발달장애인의 국제스포츠대회로 특이한 점은 승패보다는 도전과 노력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1·2·3위에 게 메달, 나머지 모든 참가선수에게 리본을 달아준다고 한다.

특히 이번 스포셜올림픽은 다른 해에 비

해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전세계 지적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선언'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변화와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주체자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지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나호희의 우주진입의 성공이 나로우주센터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적인 도전정신으로 그 꿈을 실현시켰듯이 지금 이

순간 평창에서 뛰고 있는 지적장애인들도 그동안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으로 가꿔낸 자신들의 스포츠활동을 치열한 경쟁이 아닌 참여와 화합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줌으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이 담당할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모두가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뜻한 관심으로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국가적 지원이 마땅히 주어져야 만이 그들은 꿈을 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한 무한도전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꿈들에 희망의 날개를 달고 저 우주까지 펼쳐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학교폭력 해결해야 행복교육 열린다



한병선 교육평론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답인지 알 수가 없다. 무수히 많은 생각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뿔뿔 뿜, 생각은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 시작점과 끝점도 분간하기 어렵다. 우유미한 한 조각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사념만이 존재한다. 며칠이 지난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다.

1978년 학술답사를 간다. 답사 첫날 영문

도 모르고 집단폭행을 당한다. 다른 대학에서 편입을 온 이방인이어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당해야 했는지, 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왜 발미가 되어야 했는지, 여전히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가해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일을 왜 피해자인 상기시켜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전화가 울린다. 제자가 세상을 버렸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그 착한 녀석이 왜 그랬을까. 모범생 중의 모범생이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에게서 세상을 빼앗아 갔을까. 병원으로 달려간다. 눈에 영정이 들어온다. 정말 세상을 떠났구나. 비로소 심장이 난다. 순간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지, 저항이라도 하지, 그렇게 가버리다니, 머릿속의 영긴 실타래는 결국 학교폭력 문제였다. 이 문제가 밀도 끝도 없이 올라왔던 것이다. 모두 필자와 관련된 이야기다.

매년 학교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교과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7823건(초 231건, 중 5376건, 고 2216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수는 1만 9949명, 피해학생 수는 1만 3748명이었다. 연도별 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다. 가해율은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을 포함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학교폭력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1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중 60.8%가 고통을 호소했다. 이 중 11.

65%는 자살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변하는 2차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18대 대선 공약에서도 교육공약의 핵심은 행복한 교육이었다. 다른 모든 교육관련 선거에서도 행복교육은 빠지지 않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 해결문제는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없이 행복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바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 흔히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란 식의 폭력에 대한 안이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이 공개된다. 사실 때문에 표현이 순화되고 유언비어나 악성 댓글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실명 확인을 거쳐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가입자 대부분은 신분 노출에 대한 압박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의 블로그에 글을 올릴 경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던지, 아니면 사

회나 바른 생활 과정에 필수 항목으로 넣어서 인터넷 예절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연예인들조차도 인터넷 댓글이나 악명 의욕과 비방을 읽을라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 모욕을 느낀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인터넷 비방에 명예를 훼손당하고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었는가.

이런 까닭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앞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학식·광주시 광산구 양성동

社說

대형마트 골목상권 잠식 더 이상 안된다

대형마트 14곳이 성업 중인 광주에 대형마트 4곳이 신규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상권의 공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영세상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들의 신규 출점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신규 출점 4곳은 우선 삼성테스코가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홈플러스 신규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롯데쇼핑도 북구 운암동에 롯데마트, 신원동에 참고형 할인점인 'VIC마켓' 입점을 추진 중이다. 이마트도 북구청을 상대로 매곡점 점포 입점을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광산구가 22개 단서 조항을 붙여 심의 의결했고, 운암동 롯데마트도 북구청이 '기존 롯데슈퍼 매장 면적을 최대 13%까지만 확장하는 경우 입점에 찬성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한 상태다. 'VIC마켓' 입점 역시 사실상 조건부로 승인됐고, 이마트는

북구청과 입점을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입점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상권의 공멸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대형마트는 인구 10만 5000명당 1곳으로 밀집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다. 하지만, 이들 4곳이 문을 열 경우 인구 8만1666명당 1곳으로 울산(8만1428명당 1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아지게 된다.

그만큼 과당경쟁 우려가 커지게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들이 지역상권 공멸을 우려하며, 입점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이유다.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면서 영세상권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진정한 상생의지로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달리는 폭탄' 가스차량 안전기준 강화해야

차량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LPG·CNG) 차량에 대한 이용과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가스 누출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쉽게 개조가 가능한 데 비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만 1159대이던 LPG 차량은 2010년 9만 30대, 지난해 말 9만3990대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 이 5년 이상 소유한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 운행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된데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운전자들이 LPG 차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미흡한 수준이다. 각 구청에선 점검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며, 그나마 LPG 충전소에서 이뤄지는 점검도 '말 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목포와 장흥에서

는 LPG 차량에서 가스가 새는 줄도 모르고, 도로를 달리다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압축천연가스인 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도 사정은 비슷하다. 휘발유·경유 차량이라도 교통안전공단 안전 검사만 받으면 쉽게 개조가 가능했는데다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점 때문에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충전소에서 안전검사를 받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시내 버스 전용으로 운영하는 충전소 4곳을 제외하면 2곳이 전부라고 한다.

가스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내부압력이 고압인 연료유기가 손상되거나 차량이 노후화하면 폭발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관계 기관과 정부는 안전기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달리는 폭탄'이 도심에서 터진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無 等 鼓

1950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 새벽, 네 명의 스코틀랜드 대학생이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숨어들었다. 영국왕이 대관식 때마다 의사 밑에 깔고 앉는 '운명의 바위(The Stone of Scone)'를 훔쳐낸 이들은 곧바로 스코틀랜드로 귀환했다.

구약성서의 아담이 베델들판에서 노숙하면서 배개로 삼았다는 이 바윗돌은 이듬해 4월 스코틀랜드 아르브로스 사원에서 발견돼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커다란 센세이션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전설에 따르면, '운명의 바위'는 그리스 왕자 가벨로스가 이집트로 가져갔으며, 그의 후손들이 1000년 후 스코틀랜드에 왕국을 세운 뒤부터 이 바윗돌 위에서 대관식을 치렀다고 한다. 가로 66cm 세로 41cm 두께 27cm에 불과한 이 돌이 스코틀랜드 왕실의 상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돌은 1296년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정복했을 때 약탈당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됐

다. 그때부터 영국왕의 대관식 의자로 사용된 이 바윗돌은 그 후 수백년간 분쟁의 불씨가 됐다.

그렇지만,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됐다. 1996년 영국 정부가 '대관식 때는 다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단서만 붙인 채 이 돌을 반환한 것이다.

당시 영국 정부의 결정은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해결에 좋은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문화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데, 문화재의 상징성이 큰 나라에서 이를 보관하고 상대국에서는 필요할 때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재탈취범들이 일본에서 우리 불상을 훔쳐온 것을 계기로 약탈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제 당시 약탈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반환문제부터 절제해서 차원에서 일본의 대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운명의 바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문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